

출애굽기 3 장 6 절 - 4 장 16 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6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7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한다.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15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19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21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 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22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붙이와 금붙이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12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 출애굽의 시기에 대해 알려주는 성경의 근거는 열왕기상 6 장 1 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출애굽한 지 480 년이 지난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대략 주전 15 세기에 (약 주전 1446 년)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 모세의 나이는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가 마흔 살 (사도행전 7:23), 출애굽을 할 때가 여든 살 (출애굽기 7:7) 그리고 모세가 죽은 나이는 백이십 살 입니다 (신명기 34:7).
-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한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안에 들어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사백년동안 종살이를 하며 괴로움을 겪다가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 장 13-16 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 장 35-36 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16 절에서 사대째 자손때에 출애굽한다고 하셨는데,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야곱의 사대손입니다 (출애굽기 6 장 14-20 절, 야곱-레위-고핫-아므람-모세).

-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장정만 육십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출 12:37).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갈때에 칠십명이었으니 (창 46:27) 430 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무는 기간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이끄셔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몇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이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 모세의 질문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못하겠다고 몇번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근거가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냅니까?', 두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게 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찬히 답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온갖 이적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이 모세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팡이를 이용한 이적, 손에 피부병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 모세가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는 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